

생애사 연구의 교육심리학적 고찰

강 민 수¹⁾

문 용 린²⁾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교육학 분야의 주요 연구방법으로 대두한 생애사적 연구동향을 몇 가지 분과학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교육심리학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생애사는 한 개인의 경험에 대한 역사로서 그 개인의 관점, 삶의 상황, 세계에 대한 개인의 이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자서전, 전기, 일기, 편지 등과 같은 일반적 범주로서의 개인에 관한 기록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애사 연구는 연구자의 개입에 의해 얻어진 연구 대상자의 자기반성적인 사례를 기초로 연구 대상과 연구자 사이에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개인에 관한 기록과 구별된다. 생애사 연구가 연구 대상자와 연구자 사이에서 구성된다는 것은 그것이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 속한 특정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생애사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기적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의 일반적인 의미와 교육학분야에서의 생애사 연구로 교육과정과 평생교육, 그리고 교육심리학에서의 생애사 접근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직 생애사 연구가 미진한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앞으로 생애사적 텍스트로서 교육심리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제언점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주요어 : 생애사연구, 자서전, 전기, 평생교육, 교육과정, 교육심리

1)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2단계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 사업단』 참여중
(E-mail : kang74@snu.ac.kr)

2)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2단계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 사업단』 참여교수

I. 서 론

한 사람이 그려내는 삶의 노정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이자 학문적 탐구의 주제가 되어왔다. 역사학자는 한 인물이 살아간 자취를 따라가면서 전체 역사를 그리기도 하고, 예술학자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예술가가 그 예술 분야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이처럼 다양한 학문의 영역들은 각자의 고유한 눈을 가지고 한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하며, ‘한 인물의 삶’이라는 창을 통해서 학문적 논의의 결정적인 실마리를 끄집어낸다(문용린 외, 2004).

그렇다면 한 사람이 그려내는 삶의 노정과 성취에 대하여 ‘교육심리학적 안목’에서 설명해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히 인물의 업적이나 성취 그 자체에 대한 조명은 아니다. 만약 궁극적인 관심사가 ‘인간의 지적·정서적 능력의 발현’을 밝혀내고자 한다면, 교육심리학자는 한 인물의 업적이나 성취를 일구어낸 그 이면의 ‘지적·정서적 능력’은 과연 어떤 것이며, 그 능력이 생애를 통해 어떻게 형성, 계발되고 발휘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포착하고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 즉, 한 개인의 생애사를 ‘능력의 형성과 발현 과정’이라는 축으로 분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문용린 외, 2004).

최근에 인간의 능력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한 개인이 그려내는 삶의 과정을 통해 인간 능력의 형성과 발달에 대한 관심을 풀어내 보려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즉, 비범한 지적 성취를 이루어낸 한 개인의 삶을 전기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능력의 형성과 발달의 과정을 기술하고, 그 과정에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잠재

력과 발달 기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발굴해내고자 하는 것이다(Gruber, 1990; Csikszentmihalyi, 1996; Gardner, 199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사회학의 영역에서 그 논의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면담을 통한 인생 이야기(life-story)는 성인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방법론으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사회학의 영역에서 관심을 기울였던 전기적 방법은 교육학 내에 들어오면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주로 활용되었다.

생애사는 한 개인의 지나온 삶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한 것을 연구자가 재해석한 것이다. 바꾸어 말해 생애사는 구술자의 생활담을 면담 기록자가 역사적 맥락 또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방법은 행위자 또는 내부자의 관점에서 개인의 경험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이처럼 생애사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주관적 의미세계는 그가 속한 문화를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그러므로 생애사 연구에서 개인의 관점을 드러낸다는 것은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가 속한 보편적인 문화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최영신, 1999).

또한 생애사를 포함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에 비하여 제보자 개인의 경험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적절하다. 즉 생애사의 주요한 연구 기법인 심층 면담은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경험을 회상하여 들려주게 되며 중요한 경험인 경우, 이 질문을 통해 하나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일은 예를 들어 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전환점이 될 만한 생애사건들이 이루어진 사회문화적 맥락은 물론, 개인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정체성의 형성이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라면 이 생애사야말로 주체 스스로가 지각하는 타자와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애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모든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제보자의 해석을 연구자가 재해석한 것이므로 자기 표현이나 주관적인 경험의 표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텍스트’로 파악할 수 있다(유철인, 1993). 생애사란 말 그대로 삶의 여정 가운데 주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의 의미를 스스로의 해석 과정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이 언제, 어떤 경험을 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추후 일반화를 위한 조사연구나 실험연구의 가설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생애사 접근에서 제기된 삶의 방식에 관한 질문들은 지식생산에 관하여 새롭게 조명을 하였다. 만약 어떤 연구자가 교육전기의 연구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이 접근에서 각각의 학생들이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만약 생애사가 성인의 학습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필요한 자료라면, 생애사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들은 저자이자 연구자인 자신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 한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에게 개별적 의미를 지닌다. 교육적 전기는 한 그룹 내에서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도구로서의 언어를 통한 개별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Ferrarotti(1983)는 이를 “한 행동이나 생애사를 독특하고 유일하게 하

는 것은 사회적 시스템의 과학적 지식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주관적인 것은 과학적일 수 있는 것이다(Dominice, 2000).

대부분의 개별적 삶의 역사는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일어나며,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은 구분될 수 없다. 대부분의 글로 쓰여진 전기들은 개별적인 삶과 역사의 한 시기 둘 다에 관한 증언이고, 구조와 주관성을 결합시킨다.

현대화의 과정이 진행될수록 개인은 보호막이 되었던 집단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확대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러한 개인화 과정을 통하여 인간은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되어간다. 개인화는 교육이 이제는 삶의 장에서 펼쳐지는 생애교육이 평생 동안 진행되는 과정으로서의 학습임을 잘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성인 교육자 Kade(1989)는 이런 교육의 보편화 현상을 “Universalisierung der Pädagogik”으로 표현하고 있다(이경희 외, 2006 재인용). 현대화사회의 교육의 보편화 현상은 특별한 교육의 시기와 특별한 공간에서만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 역사적인 발전 때문에 현대에는 시간적으로 다른 규칙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생애사를 통한 배움이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고 생애사 연구는 현대화 사회에서 차츰 연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생애사란 이제 뚜렷하고 획일적인 규칙이 되어왔던 인생주기의 개념이 사라지고 개인의 잠재력 발전 가능성에 따라 즉, 개인의 가소성에 따라 다양각색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Dominice, 2000).

현재 사회적 변화 속에서 생애사 접근은 한 사람의 사회적·문화적 유산을 말로 표현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육적 전기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과거에 지녔고 미래에도 가지고 갈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세계와 가치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생애사 접근이 우리의 현재 사회에 유용성을 지닌 문화적 유산들이 살아 숨쉬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현 사회의 자원으로 변형시키는 한 가지 방법인 것이다.

또한 교육학의 한 가지 분과학문인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생애사 접근을 성인교육 안에서 대체로 사람들의 순간적이고 또한 당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활용하려 하고, 그러한 성인교육의 방법론으로 대우하는 보편화된 경향과 싸우는 한 가지 방편으로 본다. 교육전기에서 성인이 각자의 언어 발견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지배문화의 획일적 코드에 저항하고, 언어의 표준화에 대항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와 신정보·과학기술은 젊은 세대에서 상징적인 행동을 부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미디어나 지배문화의 획일적 코드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신의 생애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길이다. 과거를 돌아보고, 뿌리를 찾고, 경험 학습에 이름을 부여하는 일은 성인들이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미래를 명료화하도록 돕는다 (Antikainen, 1996).

말하기와 글쓰기의 개인화는 사회화와 함께 간다. 이것은 교육전기가 가지는 영향력의 중요한 원천일 수 있으며, 성인 학습의 중요한 점으로 여겨질 수 있다. 성인교육 프로그램에서 개인적, 직업적 삶의 통합이 목표가 된 경우를 찾기로 좀처럼 힘들다. 사람들의 삶을 이

러한 방식으로 쪼개는 문제는 그들의 삶의 실재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일련의 해석의 시스템에 의해 심화될 수 있다. 때때로 한편에서는 심리학적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 유럽에서는 정치적으로 프로이드식 맑스식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점점 시대에 뒤쳐지고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때문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생애사적 접근의 연구방식은 교육학 분야에서 한 개인의 다양한 삶의 양태를 파악하고 더 잘 이해하도록 그리고 교육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명확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돕는다(Dominice, 2000).

생애사라는 방법이 기적과 같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폭넓은 관점에서 고려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여기에서 교육은 그것의 기본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하며, 이는 사람들이 전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를 이끄는 것이다. 교육전기는 이러한 변화를 겪고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묘사하는 말을 찾도록 도울 수 있는데, 그것은 또한 교육학 분야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문화적 유산을 전달하고, 과거의 언어를 가르치는 책임을 넘어서 교육은 항상 쓸모없는 지식과 싸우고 새로운 세대에게 필요한 자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현대사회는 문화가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한 개인의 생애사를 통해 그들의 삶을 드러내 보이면서 이를 통해 배운 것을, 그리고 미래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 적합한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발견하도록 돕는 것은 교육학 분야의 매우 중요한 흐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Armstrong, 1987).

더 나아가 교육심리학적 분야에서 접근하는 생애사 연구는 인간의 다양한 지적·정서적

능력이 어떻게 형성, 계발되고 발휘되는지에 연구의 초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심리학 분야 내에서의 생애사 연구는 지적 능력이라는 부분에 연구의 흐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인간의 또 하나의 능력인 정서적 능력에 관한 측면을 포착해내지 못하고 간과한 측면이 있다. Schimank(1988)는 개인의 내적 성향인 정서나 가치는 행동과 언어를 통해 나타나고 이러한 내적 성향과 더불어 개인의 정체성은 생애사와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했다(이경희 외 2006, 재인용). 어쩌면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인간의 능력이야말로 개인의 생애사를 통해 바라보는 것이 한 인간의 행위와 체험이 사회의 가치지향과 어울려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지평과 계획에 의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구조화되어 나가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교육심리학 내에서 개인의 능력발달사를 전기적 접근으로 재조명해 보려는 시도의 필요성은 인간의 능력을 재발견하려는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최근에는 인간의 능력을 ‘지능지수(IQ)’라는 단일 측정 지표로 환원하여 이해하거나 몇몇 학업 적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던 연구 전통에서 벗어나 개인의 고유한 능력의 특성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발휘되는 다양한 종류의 정신 개념으로 폭넓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Ceci, 1990). 이는 기존의 지능 연구 전통 속에서 인간의 지능이 몇 가지 능력들로만 편파적으로 해석되었으며 주로 학교 상황에서 학업 성취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실제 삶 안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능력들, 다양한 문화권의 현실 세

계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다른 능력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반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문용린, 1999). 그리하여 인간의 지적 능력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사회적 능력, 예술 및 정서적 능력 등을 포함시켜서 확장되고 있으며, 각 영역의 특수성과 현실 세계에서의 수행을 강조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능력의 발달과 변화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Solomon, B & Powell, K, 1999).

이러한 교육심리학적 연구 경향 속에서, 지적 · 정서적 능력에 관한 탐구도 실험실을 벗어나 다양한 인간의 일과 역할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능력 연구의 시각과 방법의 전환도 요청되고 있다. 인간의 능력은 책상 앞에 앉아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작업에 몰두할 때에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유연한 상호작용 속에 존재해 온 것이다. 이제, 인간의 능력에 관한 연구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각의 삶을 포착할 수 있도록 그 시각을 넓혀야 하며, 실제 한 개인이 그려내는 전 생애를 통한 능력의 발달 과정 안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 과정을 묘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 인물의 생애를 관통하는 전기적인 연구 방법이 인간의 다양한 능력 그 중에서도 교육 심리학적 측면에서 주로 다루는 지적 · 정서적 능력 탐구 논의에 공헌할 수 있는 바가 도드라진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측면은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능력을 구사했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봄으로써 재발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적인 전기적 연구는, 비록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지만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다양한 측면계발을 도모하려는 교육 현장에 분명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생애사 연구의 교육심리학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생애사의 의미를 살펴보고, 교육학 분야에서 적용된 생애사 연구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분과학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애사 연구의 교육과정 연구 분야와 평생교육 연구 분야 그리고 교육심리학 분야를 차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생애사의 텍스트로서 앞으로 교육심리학에서 제시될 수 있는 시사점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생애사의 의미

전기적 방법론 - 생애 이야기

연구 자료로서의 전기는 많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면담에 의해 획득된 주관적인 생애이야기(life-story)들은 모자이크와 같은 실재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한가지 특정한 관점으로부터 연구되어진 현상이다. 사회학에서 생애이야기는 두 개의 주요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다. 먼저 해석학적 현상학의 기초를 채택한 연구들은 사회적 삶의 상징주의와 생애이야기를 통한 삶의 경험의 의미를 연구해 오고 있다. 두 번째로 생애이야기의 도움으로 개인적 운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사회적 구조들을 발견해 내기 위한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그 내담자들은 그들의 개인적 역사나

특히 그들 자신의 삶의 조건들과 관련된 정보를 준다(Bertaux, 1981). 이때 이러한 작업의 궁극적 목적은 주체와 객체, 세계와 ‘나’ 뿐만 아니라 의도적 활동과 사회적 구조사이의 어떤 균형에 도달하는 데에 있다.

전기는 어떤 특정의 문화적 상황에서의 인성의 발달을 위한 이론적인 의미를 주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의 전기에서 다양한 문화의 부분들은 한 개인의 삶에 통일적으로 결합된다. 생애이야기들과 그것들의 특성에 관한 고전적인 정의를 과학적 연구의 자료로 인정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관련되는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다(Shaw, 1980, p.229). 첫째, 전기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보여준다. 둘째, 전기는 하나의 개인적 관점이다. 셋째, 전기는 개인과 사회 모두를 문제로 삼는 어떤 시간대를 내포한다. 전기에서의 시작점은 개인적이며 그의 관점은 그 자신의 삶과 보다 큰 사회적 맥락의 역사 모두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면담을 통해 얻어진 생애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뢰도가 없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되어 왔다. 본래 한 사람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는 늘 특정의 창작의 조건하에서 형성되어 왔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구성되어 왔다(Watson et al., 1985). 결국 개인적 경험이란 개인적 삶의 세계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생애이야기는 개인과 그에게 일어난 것과 그가 경험한 것, 그것에 대한 그의 해석,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그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이는 또한, 실재 혹은 그가 살아온 인생에 관한

구조적 틀과 그가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 혹은 표현의 실현성 모두와 동시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생애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교육학적 의미에서의 교훈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생애사 연구는 일차적으로 교육에 관한 개인적 의미에 관심이 있지만 이러한 의미가 구체적인 맥락적 요소와 이야기의 구조라는 틀 안에서 분석되어지면서 더 큰 범주의 사회적 메시지도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전기적 방법론에서의 구성주의적 접근

생애사 연구들은 주로 전통적인 연구와 정보생산의 근본적인 규칙에 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구성주의의 틀과 관련되면서 검토되었다. 하나의 인생이야기를 말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자아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생애사 연구는 정체성을 연구하는 하나의 방식이므로, 생애이야기의 생산 그리고 과학적 적용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기억, 의미, 그리고 언어라는 개념들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통하여 생애이야기에 관한 구성주의자의 본질을 밝히고 이를 통하여 연구의 보조로서 생애사 연구가 갖는 특별한 성격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과학 연구는 내용과 형식 양쪽 모두에 있어서 융통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연구는 합리성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재는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접근들은 자격, 타당도에 있어 그들 나름의 영역을 가지며, 다양한 방법론들은 적용에 있어 그들 나름의 조건들을 갖는다. 사회과학연구의 융통성은 연구되어지는 세계와 연구자의 세계에 대한 정신적 이해

에 의한 성질에 좌우되며 세계에 대한 연구자의 지적 이해에 의해 결정된다(Malmberg, 1984; Antikainen, 1996, 재인용). 연구의 논리와 대상이 접근되어지는 방식은 존재론적·인식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수준들 사이의 관련성으로부터 출발한다. 간단히 말해, 존재론적 수준은 실재의 본질과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의 기본적인 성질에 관련되고, 인식론적 수준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관련성을 포함하며 그리고 방법론적 수준은 현실에서 정보를 찾기 위해 연구자가 선택하는 방식에 관련된다(Guba, 1990; Morgan, 1983).

해석학적 현상학의 기초를 채택하는 연구의 경우, 일차적인 관심은 인간의 경험, 주체의 의식 안에서의 의미들, 그리고 주관적 삶의 세계이다. 실재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손에 넣지 않으며, 세계는 먼저 경험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하여 구성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관심은 의식의 경험을 하나의 의미 있는 존재물로 조직함으로써 만들어진 개념적 구성들이다. 그러므로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이론에서는 개인의 내적 정신적 의식의 세계가 강조되고 인간은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함으로써 이전의 경험들에 회고적으로 의미들을 부여하며, 언어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사건에 의미를 주게 된다.

하지만, 개인의 주관성과 유일성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대상화되어 오고 있는 인간의식의 형식들과 직접적으로 개인적 주체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의미의 보편적 체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인적·심리적 의미는 별도로 하고도 의미가 갖는 객관적 구조가 있으며 보편언어와 같은 필수적인 일차적 요건들이 있다. 결국 인간의 존재는 사회

적으로 결정되면서 동시에 그 자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Antikainen, 1996).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그 특징들 때문에 전기적 방법론에서는 구성주의적 접근의 관점에서 그 기초를 두고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상황과 문화적 맥락에 의해 창조되는 존재로 그리고 그것들의 창조자로 진술된다. 한 인간은 활동적이고 개인적이며 전체적이고 의식적인 생명체로 인식되며 또한 존재, 생활에 순응하면서 사회적 세계를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구성주의적 접근에서 구성은 만들어내는 것, 즉 마음속에서 구성된 존재물에 추가하고,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은 어떤 계획과도 같은 것이며, 사고의 구성이 된다. 생애사 연구 또한 이러한 접근방식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III. 교육학 분야에서의 생애사 연구

교육과정에서의 생애사 접근

교육과정에서의 생애사 연구는 교육과정의 이해를 주장하던 1970년대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인 재개념화의 움직임과 함께 발전하였는데, 교육학자들은 자서전과 전기적 텍스트에 의한 교육과정의 이해를 현 시대에서 하나의 담론으로 주장하였다. Pinar(1978)은 자서전과 전기적 문맥의 발전을 세가지 커다란 흐름으로 묘사하였는데, 첫째, 자서전 이론과 실행, 둘째, 여권주의자들의 자서전, 셋째, 교사들의 자서전과 전기적 이해를 위한 노력이 그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자서전, 전기, 그리고 보다 확장된

개념에서의 생애사 텍스트를 통한 교육과정의 이해가 여성과 소외된 계층뿐만 아니라 교사교육 분야를 위해 그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영천, 2004 재인용).

교육과정 연구영역에서 생애사적 접근의 수용과 강조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20여년 동안 생애사 연구방법의 이론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한 Pinar는 교육과정연구에서의 생애사와 자서전적 연구방법의 이론화를 중심으로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는 학교의 교육과정 현상 속에서 한 개인이 갖는 구체적인 경험이 무엇인지를 연구의 초점으로 삼으면서 교육과정연구는 한 개인이 학교경험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이며, 자아의 의식과 억압을 성찰할 수 있는 해방적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김영천, 2004). 또한 그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사를 기술하고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교육과정 연구의 진정한 의미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하여 한 개인의 삶에서 억압되고 체포된 의식을 노출시키고 고양시키는 것이 교육과정 탐구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다른 학자로 J. Miller를 들 수 있는데, 그의 생애사에 대한 강조는 실존적, 자서전적, 그리고 여성 해방적 교육과정 연구 배경 속에서 ‘교사’연구의 중요성을 이론화 시켰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녀는 교사가 쓰는 교육전기는 교육과정학자와 외부자로 하여금 교사의 내면세계와 삶을 이해시킴으로써 학교교육의 실재를 개선하는 작업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

Miller와 함께 생애사 연구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Connelly와 Clandinin은 교육과정 연구자가 가져야 하는 주요 관심을 교사와 학생

들의 삶의 경험으로 곱으면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방법이 그들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연구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교육과정 연구자는 교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또는 교사로서 하여금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여 기록하는 작업을 담당할 사람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될 때, 교육과정 연구자는 교사가 실천하고 있고 개발해 놓은 ‘가르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규명하고 이론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염지숙, 2003).

생애사 연구는 자기반성과 성찰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론적 도구로서 대상자와 연구자는 자신의 위치성과 정체성을 새로이 형성 또는 재형성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이러한 기회는 교육과정 연구분야에서 주로 소재로 삼고 있는 ‘교사의 삶’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학생이나 기타 교육적 환경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생애사적 연구는 모든 상황이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형성된다는 주장과 함께 교육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또한 그러한 맥락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에서의 생애사적 연구의 이용은 교육을 하는 교사나 교육을 받는 학생들 그리고 교육 행정가들 역시 자기반성과 성찰이라는 생애사적 과정을 통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더 나아가서 이상적인 교육 환경의 구성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영천, 2005).

평생교육 연구에서의 생애사 접근

평생교육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생애사 연구

란 개인이 삶의 전 과정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과 삶의 구조를 성찰하여보고 시각의 전환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만이 성인교육에서 가장 생산적이며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에서 발달된 연구이다. 성인 교육에서 개인은 교육의 주체이며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발전시켜 자기의 삶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방법을 찾는 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개인의 삶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 구조와 과정 속에서 얽혀있고 현대화 시대의 개인의 문제는 노년기에 이룰수록 다양한 생애사를 통해 축적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삶의 능동적 주체이다. 생애사 교육은 완성된 논제가 아니라 아직도 활발히 연구 진행 중인 평생교육론이다(Alheit, 1998). 평생교육을 통한 성인 교육은 이제 형식적인 제도적 교육을 떠나 개인 스스로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적극적인 주체인 개인을 실제의 생활 속에서 비형식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평생 교육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교육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공적인 과제이다. 수명의 길어지면서 누구나 연장된 성인기를 맞게 되었고, 성년기 뿐 아니라 정년퇴직을 맞게 된 노인들이 좀 더 풍요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갖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평생 교육자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개개인의 삶이 분화되면 분화될수록 성년의 모습이란 이제 한두 가지의 틀로 짜여지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므

로 능동적인 삶의 주체자인 개인이 맞게 되는 노년은 스스로가 아니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시각의 변화가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개인의 시각발달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란 개인의 생애사를 이야기함으로써 반성적 사고과정을 거쳐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성찰력을 통하여 스스로의 판단력을 길러주는 길이 참다운 뜻의 평생교육이라면, 생애사교육에서의 학습은 스스로가 깨우쳐나가는 과정이라 하겠고, 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자율성을 높여주어 스스로 깨우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라 한다면 이러한 방법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생애사 연구에서의 학습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종합될 수 있다.

생애사 연구에서의 학습이란 자기 삶 속에서 스스로 배운다는 것을 뜻한다. 인생의 주기를 연결하는 중간의 인생주기가 많아지고 있고 이 주기에는 제도적 또는 형식적 교육이 아닌 비형식적 교육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의 경우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또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가족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본인의 직업 활동을 하게 됨으로 배움의 시기, 일하는 시기, 그리고 장년기 등으로 분명한 인생주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의 뚜렷한 구별이 없이 가족의 상황에 맞게 인생주기가 구성된다. 현대화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그리고 불확실한 인생의 연결고리시기가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현대화시대에서 개인은 독창적인 삶의 의미를 구성하게 되는 스스로의 깨달음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삶의 주체인 개인의 삶의 의미부여 과정은 평생교육 안에서 곧 생애사 연구에서의 학습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나온 자기의 삶을 구술방식으로 경험의 재구성을 거치면서 반성적으로 되새겨보는 과정을 통해 전환된 시각으로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적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Alheit 1998). Alheit(1998)는 학습의 전이 과정을 인생에 있어서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선택을 위해 조각이불처럼 계속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여 나간다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성인교육에서 생애사 연구를 통한 학습이란 이제 평생교육으로써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일컬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성찰과 체험을 통하여 끊임없이 배우며 새롭게 인식한 것을 토대로 또 새로운 시야를 넓혀나간다. 기능적으로 본다면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학습이므로 자기반성은 모두 생애사적 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으로 개인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볼 자세가 되어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평생교육 분야의 교육 현장에서 주로 쓰여 지는 생애사 이야기하기를 통한 시각전환학습의 예로 ‘이야기 카페’를 들 수 있다.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카페의 교육적 효과는 다른 사람의 생애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다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 볼 수 있으므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인생의 이야기는 실재 생활세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인간은 사회라는 틀 안에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인 것이다(Alheit 1994, 박성희, 2004 재인용).

생애사 연구에서 학습이란 의식적인 과정이며 말이나 글로 표현된 것이므로 개인이 스스로 고른 이야기의 주제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의 전생애를 하나의 삶의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본질성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한 참가자는 자기 삶에 고유한 개인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자세히 전개하며 또 끝까지 마치게 된다고 한다. 삶의 이야기는 현재의 시각으로 다시 꾸며진 것(Schütz 1983, 1984, 이경희 외, 2006 재인용)이며 사실과는 다르다고 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각으로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바로 학습 더 넓게는 교육이라는 것이다. Schütz는 삶의 이야기는 개인 각자의 고유한 의미가 있으며 개인의 유일한 것이므로 현재의 시각에 따라 항상 다르게 재구성될 수 있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연속의 과정이므로 타인의 눈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각자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교육이란 생산적이며 현실적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삶의 주체자인 개인의 모습은 개개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른 사회의 가치가 상호적으로 결합되는 것이므로 개인은 생애사 학습에 의해 사회에 잘 적응하는 인간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다 (Buschmeyer 1992, 이경희, 2006 재인용). 즉 삶을 이야기하는 의식화 작업과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원칙은 배움의 기회를 통하여 더욱 촉진되며 강화될 수 있다.

교육심리학에서의 생애사 접근

한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사례를 생애사적으로 탐구한 학자로는 Campbell(1949)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위인이 가진 여러 가지 측면에 관심을 가졌지만, 주로 신화속의 영웅에

관심을 가졌다. Campbell에게 신화는 정체성을 가진 인간에게 내면화된 상징체계의 기본 틀이며 영웅은 이러한 신화를 구현한 인물로 인식되었다(김두현, 1966).

이후에 사회결정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입장에서 보는 위인들에 관한 연구는 보통 사람들과는 명백히 다른 특성을 지닌 한 인물이 위인으로 인식되어 가는 과정과 사회 절차에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 위인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규범적 가치관을 설정해주는 수단, 사고 그리고 행위의 귀감 역할을 하는 존재이며 사회 가치관을 구체화 하여 반영한 화신으로 인식되었고, 일반사람에 비해 그가 이룬 위대한 업적과 성취에 의해 주목받는 존재였다(이상희, 1975). 따라서 이들의 생애에 대한 기술은 성취 그 자체와 관련된 일화의 총합이었다.

이러한 연구들과는 달리 위인의 심리적 성장과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발달과정과 그 안에 숨은 심리적 기제를 밝혀내려는 시도는 정신분석이론가인 Freud와 Erikson으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정신분석학이라는 영역을 창출하며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마련한 Freud는 위인이나 예술가의 삶을 분석하면서 여러 형태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남겼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정신적 특성은 그 출발점인 출생과 유년시절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인간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전기적 연구방법이 인간의 정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고 설명한다(Hall, 1979).

Freud가 분석한 천재예술가이며 과학자이기도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연구에 따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일생을 살펴보면 그 일생

을 통과하며 흐르는 동성애적 성향과 같은 시기를 살아간 다른 예술가들과는 구분되는 예술 행위 방식들을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다(Hall, 1979).

또 다른 정신분석학파의 영향을 받아 유아기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위인의 성취 이면에 존재하는 정서적 동기와 에너지의 근원을 탐색하고자 했던 Erikson은 '청년 루터'에서 어릴 적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콤플렉스와 자아 정체감의 형성과정이 루터의 성취를 이루게 한 정신적 근원으로 지목하였다.

Erikson은 그밖에 역사적 전기연구인 '간디의 진실'을 통해 개인의 생활사와 그가 살았던 역사적 시기의 상호작용에 대해 통찰함으로써 개인의 인생주기와 자아발달에 관한 논의를 일구어내었다(이명희, 1989).

결국, 인간의 정신적 발달과정을 설명하는데 공헌한 Freud와 Erikson도 한 사람의 생애사를 정신분석적 관점으로 풀어내는 심리적 전기(psycho-biography)를 통해서 자신들의 거대한 발달 이론을 공고히 하기도 하였다(Runyan, 1982). 이렇듯, 전기적 연구방법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며 이러한 방법은 최근 들어 인간의 다양한 능력이나 창조력 등의 능력 형성과 발달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Gruber(1999)는 인간의 지적 능력 발달을 설명하는데 최초로 전기적 접근을 적용하였다. 그는 창조적 성취를 보였던 예술가, 과학자 등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그들의 행동적 사고 특징을 구체화하려고 시도했다. Gruber의 대표적인 전기적 연구로는 진화론을 주장한 과학자 찰스 다윈연구가 있다. 연구 내용에 의하

면 과학자로서의 다윈은 특정한 정신의 세계인 과학의 지식 구조에 몰입하며 그 지식 구조를 창조하거나 탐색하는 사고 작용을 즐기고 사물이나 문제 현상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정서적 애착을 경험하면서 과학자로서 성장했다(Runyan, 1982). Gruber(1999)는 특히 뛰어난 성취를 이룩한 인물의 지적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인물이 집중한 특정 분야의 지식 구조를 주목해야 하며 발달 과정에서의 정서적인 경험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한 인물만을 대상으로 인간의 능력을 면밀한 사례연구 중심으로 밝혀낸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문용린(2003)은 정문술 연구에서 그가 발휘한 능력의 특징을 평가하고 전 생애에 걸쳐 그 능력이 계발되는 과정을 문헌자료의 수집, 분석, 그리고 정문술과의 면담을 통하여 그의 지적 잠재력이 계발되는 과정을 심층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인 정문술의 지적 능력은 논리수학 지능과 인간친화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이 효과적으로 조합된 특징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통찰력 있는 전략가이면서 동시에 훌륭한 경영인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특히 그의 자기성찰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은 생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실패를 극복하는 데 발휘되는 주요한 지적 능력으로 활용됨이 밝혀졌다.

안태진(2003)은 전해린의 지적 특성과 계발 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자기성찰지능과 언어지능의 조합으로 문학적 창의력을 계발하지만, 자기성찰지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여 삶의 여러 문제를 헤쳐 나가지 못한 채 불균형적인 지적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 밖에도 류숙희(2004)의 백범 김구의 다중

지능 계발과정 연구에서는 김구가 발휘하는 능력 특징을 다중지능 이론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김구의 신체운동지능이 강인한 체력과 기민한 동작능력, 그리고 탁월한 인간친화지능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잘 인식하고 감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자기성찰지능의 뛰어난 발현으로 자기인식과 통제능력, 그리고 자기동기화 능력에서도 비범함을 보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인물의 능력 발달과정을 면밀하게 밝히려는 목적을 가진 연구들로서 인물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각각의 능력을 다중지능 이론의 관점에서 그 발달과정을 분명히 밝혀냈고 내용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연구 절차를 명료화 하는 작업을 통하여 학문적 의의를 찾고 있다.

Gardner(1983)는 다중지능 이론을 주창하면서 지능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관점’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에 의하면 지능은 한 문화권 혹은 여러 문화권 안에서 가치 있게 인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산물을 창조해내는 능력이다. 즉 인간의 지적 능력은 문화적 맥락 안에 고안된 상징체계에 작용하는 능력으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어떤 상징체계를 그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발달과 구조, 개념이 질적으로 다르게 작용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는 심리학적, 생물학적, 문화인류학적 증거를 가지고 다양한 인간의 지적 능력을 찾아내어 개념화 하였는데, 여기에는 여덟 가지 지적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Gardner(1993)는 자기성찰지능과 인간친화지능의 대가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깊이 성찰했던 버지니아 울프와 다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간디를 꼽고 있으며, 이들 모두 사람들에게 대해 큰 관심이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이 두 위인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으면서도 개혁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울프가 엘리엇과는 달리 소설의 시대적 조류를 거부했으며, 간디는 대처와는 달리 새로운 정치형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즉 그들은 사회적 성취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사람에게 중점을 두었고, 자신의 에너지를 관련 분야를 마스터하는 데 투자하기보다는 기존의 분야를 거부하고 혁신하는 데 투자한 것이다. 또한 그는 영국의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 일기, 편지 등의 광범위한 자료들을 통해 그녀의 지적 능력 형성과 발달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녀의 성취는 자성지능과 언어지능의 이상적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Gardner의 인물분석은 모든 개인이 지적 영역과 주위의 의미 있는 타자, 사회 환경 사이에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동은 모든 인간의 발달 과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각 요소들과 어떤 양태로, 어느 정도 원활하게 상호작용 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지능의 유형과 발달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한다. Gardner의 연구는 자신의 다중지능 이론과 체계적 분석을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고유한 성취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에 대한 전기적 연구들을 통해 ‘지적 능력 계발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정교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V. 생애사 연구의 교육심리학적 제안

생애사 연구의 가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학 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이 점차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시대와 미래의 연구 방법에는 자기반성과 성찰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자서전, 전기, 이야기를 포함하는 생애사 연구와 실행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Denzin과 Lincoln(2000)의 지적은 이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몇몇 교육학 분야에서의 생애사 연구의 흐름을 통하여 앞으로 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해 교육심리 연구가 나아가야 할 제안점을 몇 가지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생애사 연구방법으로서 교육심리 연구에 대한 이해는 국내의 교육심리 연구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참여집단들이나 한 개인의 삶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학교교육장면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각 개인의 지적·정서적 능력의 갈등과 발전이 일어나고 교육적 경험이 발생하고 있는 삶의 곳곳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생애사적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에 시도된 교육심리학 분야에서의 생애사 연구 작업들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예로서 문용린(2003)의 기업인 정문술에 관한 연구, 그리고 안태진(2003)의 전해린의 지적 특성과 계발과정에 관한 연구, 이 밖에도 류숙희(2004)의 백범 김구의 다중지능 계발과정 연구 등이 한 인물의 능력발현과정과 갈등구조 그리고 교육적 경험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생애사 연구의 가치를 인정할 때,

앞으로 교육심리 연구 분야에 있어서 한 개인의 지적·정서적 능력의 개발, 갈등구조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을 둘러싼 맥락적 상황의 환경, 그리고 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들에 대한 분석, 평가 작업이 더욱 심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작업의 결과는 한 개인의 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노출시키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교육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생애사 탐구방법을 통한 교육심리연구는 연구방법 자체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당위적 요구를 들 수 있다. 이는 생애사 연구방법을 교육심리 연구의 새로운 탐구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이론화시킬 수 있는 학문적 분위기 조성이 구축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는 교육심리 연구 방법론에서의 다양화와 다원화가 최근 들어 시도되고 있는 학문적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인식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문적 영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교육심리 연구 방법론자들이나 이론가들은 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하여 인간의 지적·정서적 능력의 발현과정을 연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발현과정을 교육심리학적 안목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교육적 상황에서 어떻게 개념화하여 적용시키고 어떠한 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애사 방법에 대한 철학적, 방법론적, 이론적 지식들을 기반으로 교육심리학 분야 연구에 맞는 보다 적합한 연구방법론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생애사적 연구가 단순히 삶의 반성이

나 성찰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현상학, 해석학, 포스트모더니즘, 후기구조주의, 해체주의 등 다양한 이론적 기반과 깊게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김영천, 2004)은 교육심리 연구자들에게 인간의 교육심리적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인식과 폭넓은 관점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다양한 측면과 각각의 교육장면을 들여다보고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교육학의 여러 분과학문과 교육심리 연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생애사 연구의 전반적 가치와 연구동향들을 분석한 수준에서는 생애사 연구방법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앞으로의 생애사 연구 논문들에서는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연구 자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론화 작업과 논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논문들을 통하여 이러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었을 때에, 이론적·방법론적 기반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심리적 과정과 관련된 생애사 연구들은 교육장면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훌륭한 자료로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V. 논의 및 결론

각각의 응답으로부터 연구모델(설명체계)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여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비교하고, 범주화하며, 명료화함으로써 연구의 핵심을 더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론이 발전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방법을 수용함으로써 연구의 핵심을 더 세밀하게 설명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론이 발전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응답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과 차이를 드러낼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연구의 주제가 명료해진다. 생애사 연구를 질적 연구로서 위치 지우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애사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 때문에 피상적이라고 비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로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연구의 객관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연구의 한계가 나타나며,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질적 연구의 특징은 대부분의 연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가 진행되어 가는 단계, 각각의 연구단계에서 부딪히는 문제, 연구의 주제와 부합하여서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경위, 그리고 연구자의 감정과 한계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비판적인 안목을 견지함과 동시에 반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박성희, 2004).

물론 생애사라는 연구방법이 기적과 같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폭넓은 관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교육은 그것의 기본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하며, 그것은 사람들이 전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를 이끄는 것이다. 교육전기는 이러한 변화를 겪고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묘사하는 말을 찾도록 도울 수 있으며, 그것은 또한 교육학 분야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문화적 유산을 전달하고, 과거의 언어를 가르치는 책임을 넘어서 교육은 항상 쓸모없는 지식과 싸우고 새로운 세대에게 필요한 자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지금 우리는 문화가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새

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성인들이 자신의 생애사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통해 배운 것, 그리고 미래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 적합한 말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은 교육학 분야의 매우 중요한 흐름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한 사람이 그려내는 삶의 여정은 교육 현장에 무엇을 제안하는가? 물론,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한계는 ‘일반화’의 힘을 획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 인물이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형성하고 이를 삶의 성취로 일구어내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발달을 도모하려는 교육 실천가들에게 강렬한 제안을 할 수 있다. 한 사람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피부에 와 닿는 생생함과 깊이로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 인물의 생애사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얼마나 다른 지적·정서적 독특성과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며 특정 분야에서 성취를 일구어 내기 위해서 유년기의 유능성이 어떻게 주위의 환경과 교감해야 하는지, 그러한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의 조우와 지적·정서적으로 지지적인 사람들의 존재, 장기간 집중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등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해준다(문용린 외 2004).

따라서 교육심리학 분야에서의 한 인물의 생애를 관통하여 시도하는 생애사 연구는 인간 능력의 형성과 계발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지적·정서적 성취과정’을 해석하는 ‘교육학적 안목’을 제안하고 능력 계발을 도모하려는 교육현장에 실제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두현 (1966). 인간의 유형. 건국학술지, 7(1), 21~70.
- 김신일 (1995). 학습권 개념내용과 교육학의 새 연구과제, 평생교육연구, 1(1).
- 김영천 (2004). 교사의 삶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연구동향과 예들. 열린교육연구, 12(2), 79~105.
- 류숙희 (2004). 백범 김구의 잠재능력 계발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용린 (1999). 다중 지능 이론의 교육적 의미와 학교에서의 활용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구원.
- 문용린 (역) (1997). 비범성의 발견. Gardner의 Extraordinary minds. 서울: 해냄.
- 문용린, 이광형, 안태진 (2004). 그러나 그의 삶은 따뜻했다: 정문술의 다중지능 분석보고서. 서울: 산해.
- 박성희 (2004).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의 이해. 서울: 원미사.
- 박아청 (1988). Erikson의 아이덴티티論. 서울: 교육과학사.
- 신기현 (2002). 메타교육의 관점에서 본 칼 로저스의 교육적 삶: 한국 교육개혁에의 시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옥순 (1991). 교육 연구의 새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안태진 (2003). 다중지능 이론의 관점에서 본 전혜린의 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철인 (1993). *Life history of two Korean women who marry American G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박사학위논문
- 유현실 (1998). 재능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 체육 재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형숙 (1994). 생애사연구의 발달과 방법론적 쟁점들, 배종무총장 퇴임기념 사학논총, 515~530
- 이경희, 박성희 (2006).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생애사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2(3).
- 이명희 (1989). "Erik H. Erikson의 심리사학 소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1975). 가치관의 상징적 구현체로서의 영웅상에 관한 연구-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영웅상의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논총, 12(1), 317~345.
- 조용환 (1997). 평생교육과 교육생애사, 평생교육연구, 3(1).
- 조용환 (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지경자 (역) (1979).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Hall의 Sigmund Freud. 서울: 홍신문화사.
- 최영신 (1999). 원불교 수행과정의 교육학적 해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Alheit, P. (1998). Two challenges to modern concept of lifelong learning. *Lifelong Learning and its Impact on Social and Regional Development*, 31~41. Bremen.
- Antikainen, Ari. (1996). *Living in a Learning Society: Life histories, Identities and Education*. Falmer Press.
- Armstrong, Paul. (1987). Qualitative Strategies in Social and Educational Research: the life history method in theory and practice. University of Hull.
- Bertaux, D. (Ed.). (1981). *Biography and Society; the life history approach in the social science*. Beverly Hills, CA: Sage.
- Campbell, J. (1949).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Princeton: Bollingen.
- Ceci, S. J. (1990). *On Intelligence...more or less: A bio-ecological treatise on intellectu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 Csikszentmihalyi, M. (1996).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HarperCollins.
- Densin, N. K. (1997). Biographical Research Method. *Educational Research, Methodology & Measure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nzin, N., & Y. S. Lincoln (2000).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London: Sage.
- Dominice, Pierre. (2000). *Learning from our Lives: Using Educational Biographies with Adults*. Jossey-Bass.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H. (1999). *Intelligence reframed: Multiple intelligence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 Gruber, H. E., & Wallace, D. B (1999). The case study method and evolving systems approach for understanding unique creative people at work. In R. J. Sternberg (Ed.). *Handbook of creativity*, 93~11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ba, E. C. (1990). The alternative paradigm dialog. In Guba, E. (ed.) *The Paradigm Dialog*, Newbury Park-New Delhi, Sage.
- Morgan, G. (1983). *Research Strategies: Modes of*

- Engagement. In Morgan, G. (ed.) *Beyond Method*, Beverly Hills, Sage.
- Pinar, W. F. (1978). Life history and curriculum theorizing. *Review Journal of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 3(1), 92~118.
- Runyan, W. M. (1982). *Life histories and psychobi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 Schulze, T. (1993). "A Biographically Oriented Theory of Education". *Education*, 48.
- Shaw, B. (1980). Life history writing in anthropology: A methodological review, *Mankind*, 12(3), 226~330.
- Solomon, B. & Powell, K. & Gardner, H. (1999). Multiple Intelligence. *Encyclopedia of Creativity*, 12, 273~283.
- Watson, L. C., & Watson-Franke(1985). *Interpreting Life Historie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1 차원고접수 : 2007. 01. 01.
수정원고접수 : 2007. 02. 20.
최종게재결정 : 2007. 03. 01.

Educational Psychology Consideration of Life-history Research

Kang, Min-Soo

Moon, Yong-Lin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ning of a life-history research which has become an important research method in the educational field. Life-history is a history of one's experience which shows one's perspective, life situation and understandings of one's life. In this point of view, life-history research is another form of a personal record such as autobiography, biography, diary, letter, etc. On the other hand, life-history research is a result of a researcher's involvement, which is based on self-reflection in the case where the object is personal. This differentiates the research from other forms of personal records. This also means that life-history research is embedded in culture and history. In this study, the general meaning of life-history research, along with life-history research on curriculum, lifelong education and educational psychology were analyzed. Furthermore, a few suggestions on adopting life-history research in the educational psychology field were made according to this analysis.

Key words : life history research, autobiography, biography,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educational psychology